

유리 횡복직근피판술을 이용한 유방의 재건에서 수혜부 혈관으로 내유방혈관 천공지의 사용

박명철 · 이정훈* · 정재호 · 이승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유방의 재건에 있어 유리 횡복직근피판을 이용한 재건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이 계획 되었다면 수술의는 우선 수혜부 혈관을 선택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혜부 혈관으로는 흉배혈관, 내유방혈관, 회선견갑혈관 등이 있으며 수술의의 경험과 혈관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택되는데, 그 혈관의 선택에 따라 유방의 모양이나 수술의 편의성 등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내유방혈관의 천공지를 수혜부로 선택하여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에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방절제술과 동시에 유방재건술을 시행받기로 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 전 흉골연에서 2, 3개의 내유방혈관에 대한 천공지를 Doppler를 이용하여 미리 표시하였다. 유방절제술시 일반외과 의사와 협동하여 내유방혈관의 천공지를 보존하도록 하였고, 이에 4명 모두에게서 제 3늑골간에서 2cm 길이의 천공지를 쉽게 남겨둘 수 있었다. 보존된 내유방혈관 천공지를 수혜부 혈관으로 하여 유리 횡복직근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1명의 환자에서 지방괴사가 있었으나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하였으며 그 외 피판괴사와 같은 다른 치명적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내유방혈관의 천공지를 수혜부로 사용하는 것은 늑골을 절제할 필요가 없으며, 짧은 혈관경을 가진 피판이라도 쉽게 미세혈관 문합이 가능하고, 수술의의 시야가 좋을 뿐 아니라, 유방의 내측 부위에 대한 용적을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수혜부 혈관과 근피판의 혈관경에 대한 직경의 차이는 있었으나 미세혈관 문합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유리 근피판을 이용한 유방의 재건술에서 내유방혈관의 천공지를 수혜부 혈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